

#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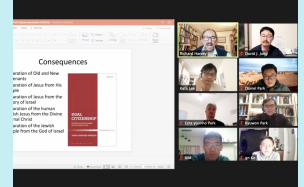


## ‘맞춤형 식탁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여행을 함께 간다든지 운동을 함께 한다든지 혹은 목욕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한국에 살때 저는 그렇게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문화권이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식탁교제의 중요성과 강조점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교제를 통해 서로 더 친밀해집니다. 오죽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관계를 식구(食口)는 표현까지 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다보면 현지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코셔(Kosher)가 있고 아랍인들에게는 할랄(Halal)이라는 음식법이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도 음식 재료, 조리법 그리고 시간이나 절차 등 복잡하고 다양한 규율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유롭게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현지인들과의 식탁교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식탁으로 초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고심하다가 생각한 것이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나 차는 그래도 부담없이 대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여겼습니다. 해서 저희 집에는 현지인들을 위한 전용 메뉴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젊은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교제를 나눴습니다. 남편인 유대인 형제는 차만 마셨고, 아내인 이방인(남아공) 자매는 식사도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식탁교제이지만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수만 있어도 교제가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오랜만에 찾은 예루살렘’

다비드는 사역 때문에 2주에 한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자주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1년 넘게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못했더라구요. 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예루살렘 방문 길이 동행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베두인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으면 해서 이번에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회라서 그런지 서로 어색해 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많이 컸고 또 그 사이에 베두인 마을에도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그런지 머무는 내내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반면 아내는 오랜만에 베두인 마을 사람들을 방문한 만큼 재회를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가족들도 가끔씩 데려가 달라고 제게 말하더군요. 저도 매번 가족들을 데려가는 것은 어려워도 가끔씩은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차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도 일년에 2,3차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정작 차도 있는 우리가 멀다고 못갈 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넓혀 가야겠습니다.



## 리처드 하비

Jews for Jesus 영국 대표인 리처드 하비 교수님과 메시아닉 주에 대한 강의 진행



## 유대인 사역팀 모임

유대인 사역팀 가족들 전체모임을 1박 2일의 일정으로 갈릴리에서 가졌습니다.



## 유월절

유월절을 맞아 주변 이웃들에게 출12:13절의 말씀으로 문안하며 인사 나눕니다.



## 베두인 마을 가족방문

오랜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방문간에 베두인 마을에 들러 교제하였습니다.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살롱!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 하시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대략 일주일 정도 교회력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유월절을 맞아하여 그동안 바깥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관광지에 몰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나 국내 여행으로 한창입니다. 오늘은 시내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같아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요즘 날도 좋고 야외 활동도 자유로운 만큼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전도지를 공원과 버스 정거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을 데리고 자전거 타고 갈릴리 주변을 돌며 전도지를 부착하고 옵니다. 이렇게 한명씩 일대일 데이트도 하고 전도도 하며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비록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직은 제한되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영성과 지성 무엇 보다 야성을 겸비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월절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우기가 지나가고 곧 건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늦은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곧 무더운 건기가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시간도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며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쉬의 내용중 솔로몬이 했던 말 “גִּם זֶה יַעֲבוֹר”, “이또한 지나가리라”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견뎌낼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며 두려움에 맞설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 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 「 기도제목 」

- 1) 기도해주신 덕분에 3월 17일 비자갱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 2) 노인센터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끊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 3) 2021년 올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 4) 가족들의 건강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맡겨진 학업(홈스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5) 매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Motto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mailto: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